

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식생활 태도 및 식품기호도

유지은 · 박금순[†] · 이선주

대구가톨릭대학교 가정관리학과

경주시내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식생활태도와 식품기호도를 조사하였다. ‘부모님과 의 식성에 대한 유사 여부’에서는 여학생은 식성이 비슷하였으나(M=3.36), 남학생은 비슷하지 않았으며 유의적인(P<.001)차이를 보였다.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식품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 모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으며, 여학생(M=2.88)보다 남학생(M=2.54)이 유의적으로 더 낮았다. 식품기호도에서는 육류, 난류, 어패류, 두류, 우유 및 유제품, 뼈째먹는 생선, 과일류, 당류, 지질식품, 음료, 가공식품에서 유의적(P<.001)인 차이가 있었다. 식생활태도의 형성요인으로서는 부모님의 영향 60.7%, 친구 16.9%, 매스컴 및 책 13.8% 등 주변환경이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학교교육이 식생활태도에 영향을 주는 비율은 8.0%에 불과해 실제 식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실천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. 맛의 선호도에서는 남학생은 단맛, 여학생은 매운맛을 선호하였다.